

9월 8일 개막 제6회 광주비엔날레 참가 화제의 인물

“사물 이면의 복잡한 관계망 표현”

반가사유상 소재로 대상 수상한 마이클 주

9월 8일 개막한 제6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한 국제 미국인 마이클 주(40·사진) 씨가 반가사유상을 이용한 비디오 설치작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작인 마이클 주의 ‘보디 유프스 케터스’는 불상 주변에 여러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눈으로 바라본 불상과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찍은 불상을 영상화시켜 서로 다른 의미를 생각하도록 했다.

마이클 주는 수상작가 인터뷰에서 “과학과 종교를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두 가지는 공존이 어렵지만 이들의 이중성을 다루고자 했다”고 밝혔다.

참여한 바 있는 마이클 주는 “당시 백남준 씨의 작품에서 기술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물도 표면 아래서는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듯이, 우리가 사는 현실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쉽고 친근한 작품 추구

연등축제 인연으로 초청된 조각가 이기성씨



광주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장인들을 제작한 인연으로 비엔날레 참여 작가로 초청된 조각가 이기성(38·사진) 씨가 주인공.

3년 전부터 광주 한바음선원에서 장인들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기성은 “매년 용, 닭, 개 등의 동물과 산, 구름 등 자연을 장엄물로 형상화했던 것이 이번작품 구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법주사 삼불좌상 개금불사 회향

보살계 수계·10만등 점등도

국내 현존하는 소조좌불 가운데 가장 큰 보살계 대웅보전 삼불좌상(삼존불, 보물 1360호)이 40년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법주사(주지 도공)는 9월 12일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 점안 및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여 개금불사로 연인원 800명을 참여시키는 개금불사를 진행해왔다.

BBS FM 89.7 MHz www.kjbbs.co.kr

1624년 대웅보전 복원 당시 높이 550cm, 둘레 390cm 크기로 조성된 삼존불은 40년전 마지막 개금불사가 이뤄졌다.

남녘 ‘상사화 축제’로 들썩

불갑사·용천사·선운사서

전라도 서해안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열리는 상사화축제가 시작했다.



영광군은 9월 15,16일 양일간 불갑사 일대에서 상사화 축제를 개최하고, 함평군은 16-17일 용천사와 꽃무릇공원에서 꽃무릇 축제를 개최한다.

전용사들의 고حن헌도를 준비해왔다”며 “뒤늦게나마 진도와 인연 맺고 살아온 공덕을 회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3년 전부터 광주 한바음선원에서 장인들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기성은 “매년 용, 닭, 개 등의 동물과 산, 구름 등 자연을 장엄물로 형상화했던 것이 이번작품 구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육전 보문사 수계법회

육전 보문사(주지 상인)는 9월 17일 동등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계를 받는 수계산립 법회를 봉행했다.

진도 서학사, 6·25 참전자 위령제

남녘 땅골 진도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렸다(사진).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062)375-9986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⑤ 지혜 바라밀

호남 최초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열리고 있는 재가논강. 회가 거듭될수록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논강이 9월 8일 ‘지혜 바라밀’을 주제로 진행됐다.

“반야지혜는 ‘不二’ 깨닫는 수행”

이회재 교수는 “불교에서 지혜는 반야(般若)를 뜻하며, ‘공(空)’, ‘불이아님(不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쉽게 나와 너로 구분하여 나누는 습관이 있는데 화를 내는 것은 나와 너로 대립되기 때문이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은 것도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며 “반야의 지혜는 둘로 보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수행이다”고 말했다.

면 눈이 없는 것과 같아서 깨달음을 향해 올라가 가지 못한다”며 지혜바라밀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했다.

또한 “공, 무아, 불이아상을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가 되어 세상을 쉽게 보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의 응답

▲논주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 교수는 반야지혜 실천으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고 하지 않고 둘로 보지 않는 불이아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어머니와 태아를 예로 들었다.

“나도 역시 ‘나’라는 자존심, 학자로서의 명성에 집착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반야바라밀을 출가 수행자처럼 철저히 정진하지는 못해도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순간순간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와 태아는 둘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아니다. 그것이 불이(不二)이다. 어머니가 죽으면 태아도 죽는다. 자연이 어머니이며 우리는 태아이다. 어머니를 죽이면 우리도 죽는다. 어머니와 태아가 그러하듯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도 상호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제거대상이 아니라 나를 훈련, 성숙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지고 용서가 가능해진다. 이것이 반야의 세상이다.

또한 매일 경전 독송과 사경수행을 겸하고 있다. 가능하면 아침시간에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한다. 발원도 함께 하고 있다. 탐욕 없애기가 쉽지 않으므로 원을 세워서 기도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방향을 매일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다.

이처럼 반야의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연히 자비심과 진정심,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살다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지혜는?

그렇지만 “재가자가 불이수행을 하기에 실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열심히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수경>에 “죄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마음이 멀하면 사라진다. 죄와 마음이 없었지만 공하여 이것이 진실한 참회다(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時罪亦亡 罪亡心滅兩俱空 是則名為真懺悔)”라고 했다.

죄는 마음이 그쳤을 때 바로 사라지고, 마음을 악하게 쓰면 지옥이다. 현재 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Advertisement for 'Buddha's Wisdom'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featuring a book cover and text about parenting and education.

Advertisement for 'Anan's Diary' (아난존자의 일기) featuring a book cover and text about the life of Anan.